



통권 98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12. 7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열한번째

일시 1999년 12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장충체육관(3호선 동대입구역)

출연 정태춘 · 박은옥/조동진/장사의/윤도현밴드/꽃다지/박성연이정열/GIGS(이적 한상원 정원영)/코요태
사회 명계남 최광기 단편영화 내 컴퓨터(연출 · 여균동/출연 · 권해효 임명구 이상현 등)

해마다 겨울이면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강한 사람들을 풀어내라고, 인간을 인간의 자리로 돌려보내라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밤을 구른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그 열한번째 공연이 오는 12월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여균동 감독이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단편영화로 담은 〈내 컴퓨터〉를 상영할 예정이다.(관련기사 18쪽)

세계 인권선언은 기념장식이 아니라 실천강령이다

반민주악법철폐 · 양심수 석방 · 정치수배해제, 체포영장 철회를 촉구한다!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구슬이 서말이라도 뀌어야 보배이고 부뚜막 소금도 집어 넣어야 간을 낸다. 백마디 다짐보다 한 번 실천이 값지고 행동에 따르지 않는 마음속 정의감은 공상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문민 정권’이 간판만으로 문민세상 되는게 아니었듯이 ‘국민의 정부’, ‘인권선진국’도 희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짐이 곧 법’이라 했던 절대군주시대라면 몰라도 오늘의 법치사회에서는 구성원이 합의한 사법규범들, 바로 법과 제도의 반침이 있어야 한다.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반민주악법들을 없애야 한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터무니 없는 이유로 쫓기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을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 인권탄압기구를 해체하고 부당하게 감시통제하는 보안관찰 행위는 그만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조치없이 ‘문민’이니 ‘인권선진국’이니 하는 팻말만 세운다 해서 인권개선이 될 수는 없다. 법이 지켜도 좋고 어려도 일 없는 것이 아니듯이 유엔회원국이며 국제협약에 가맹한 나라라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은 기념이나 하는 장식물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강령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51돌을 맞는 오늘 이땅에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국제인권상을 받고 자유메달을 수상한 나라답지 않게 참담하고 취약하기만 하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말하고 남의 나라 인권문제 까지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그렇고, ‘한·미 범죄인도협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인도는 거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이른바 ‘민주주의 동맹’ 자로 가장 가깝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오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또한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개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해 왔었다. 서울 N.G.O대회 참가자들과 해외의 인권·노동운동 단체들이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권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되고 있는가. 몇가지만을 들어보자. 무엇보다 먼저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악법의 존재이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15년, 20년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사실이며 범민련,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노동·사회진보 단체를 이적으로 규정, 단체결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공안대상으로하여 사법처리하고 있으며 강제 철거 등으로 도시빈민의 주거권과 영세 노점상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도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사회 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다 산화해간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외세와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7·4 공동성명 정신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민간통일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들이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미국 기지 주변의 생존권, 환경적 문제는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이다. 노근리를 비롯한 수많은 양민학살을 자행하고 고엽제를 뿌리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처럼 외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이땅에서의 인권개념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다같이 제1조에서 인간의 자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민족에 대입하면 민족의 자주권이 되고 국가에 대비하면 주거 평등권이 된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외세의 간섭으로부터의 민족공동체의 자주권은 더욱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이유 가운데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 살육·파괴 행위와 식민지 지배와 억압·수탈, 파시스트나 나치즘, 군국주의 억압체제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한 부분에 있다. 오늘 세계는 다시 신자유주의, 국제독점자본, 유일 초강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서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주권평등과 민족자주권이 무차별 폭격이나 분리지배 정책으로 등으로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 이땅의 인권문제는 바로 민족자주권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자유권, 사회권 모두를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기 앞서 선언정신과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등 반민주·반민족악법과 제도를 없애고 잘못된 법과 제도로 부당하게 구속되었거나 쫓기고 있는 이들을 조건 없이 풀어야 할 것이다.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다. 새 천년을 맞는 가슴 부푼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밀레니엄 사면'을 말하고 있다. 양심수 사면은 양심수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포함하게 된다. 이제 당국에서 말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적어도 양심수는 그 이름 조차 없게 해야한다. 양심수가 부당한 권력과 사회정의 실천 사이의 산물이라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양심수존재-사회불안심리-지배체제강화라는 독재시대의 더러운 유산은 청산되어야 한다. 현정권이 들어서고 11월 1일 현재 1,147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어 있지만 최종법원에서의 실형률은 가장 가혹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서 조차 5.6%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나고 처음부터 구속될 이유가 없던 사람들을 잡아들인 것이다. 이는 또한 공안당국에서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제야 말로 양심수없는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 때문에 사회불안이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비판으로 오늘의 더러운 옷로비사건등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갈라진 조국이 하나되는 것만을 염원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고 있는 손성모(71세·20년 복역), 신향수(71세·15년 복역) 노인이 감혀있다. 이들 장기구금 양심수를 비롯한 범민련, 전국연합, 한총련, 영남위원회 사건 등 민간통일 운동과 사회진보,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된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 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88.12.21 사면때 정치수배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해제 조

치한 예가 있다. 김영삼 정권에서도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형식 수배해제를 한 예가 있다. 청년학생들은 구속된 양심수들처럼 한총련에 가입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생 조차 학생회를 만들고 반장을 뽑는데 대학생이 자신들의 자치기구를 만들었다해서 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단체결성 자유에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2-3년 많게는 7년까지 교정과 가정을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쫓기고 있다. 이들은 이미 부당하고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다. 조계사에서는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48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이 해가 가기전 이들을 반드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게 수배해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9범민족 통일대축전과 관련 체포영장 철회 요구이다. 8·15 범민족 대회는 남과 북, 해외가 7·4 남북공동성명서에서 밝힌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에 따라 통일하겠다는 의지로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민간통일운동 행사이다. 이 행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뿐 아니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가진 단체와 수많은 단체가 '범민족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국민회의 등 당과 정부기관에 직접 또는 문서로 평화적 개최를 요청하고 행사 내용을 통보 했으며 그 어느때보다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 행사참가와 관련, 강제연행된 700여명도 민가협, 전국연합 대표단의 경찰청 방문과 강력한 항의로 8.16-17일 사이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석방된바 있다. 이 행사와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들은 일반 형사상의 현행범도 아닐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성스러운 통일운동을 민간차원에서 평화적으로 벌이고 있는 70이 다된 고령이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들인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오늘의 남북관계와 남북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아직도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 낡은 냉전 의식과 공안시각으로 대하고 있는 신공안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고 민간통일운동 단체의 평화적인 통일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구나 체포영장 대상자 가운데는 암과의 투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부의장도 있다. 인도주의, 민족문제를 외면하는 체포영장을 곧바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어느 어머니와 아들의 ‘십년간’

안소영 · 후원회소식 편집부

소설가 방현석은 몇 년 전 〈십년간〉이란 작품을 통해 역동적인 80년대 젊은이들의 자전적 자화상을 그린 바 있다. 그 ‘십년간’의 일부분을 함께해 온 사람으로서 책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어딘가 미진한 구석이 남는 건,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 ‘십년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착잡한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소설이 쓰여지고 탈고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90년대의 중반에도 여전히 이 땅 젊은이들의 고뇌와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고 수배와 도피와 수감의 세월들은 한편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한 착잡함이 무감각해져버린 듯도 한 듯도 한 90년대의 말, 1999년을 한 달 남겨두고서 5기 한총련 조통위 정책실 이상훈씨(29세)의 어머니 신만섭(55세)님을 만났다. 그건 1990년대 새로운 우리 ‘십년간’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1991년, 설레기만 했던 ‘십년간’의 시작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그 벽찬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 잔소리 한번 할 일없이 잘 자라 주었던 아들은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이었고, 원하던 대학에 무난히 합격을 했다. 홍익대 건축학과 91학번 이상훈, 아들의 새내기 시절은 그렇게 빛나게 열렸고 어머니는 흐뭇하기만 했다. 제 할 일은 늘 알아서 해왔던 든든한 맏이였기에 건축학도로서의 그의 앞날에 한 기대도 컸다. 공무원의 곧은 살림에 언제 한번 마음놓고 푸근히 지내보지도 못한 어머니였지만, 그날만큼은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는 대견함에 흐뭇이 젖어보기도 하셨다. 적

어도 십년 후라면 지금보다는 안정되고 근심걱정 없는 가족들의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어지리라.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에 살핏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5월부터였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다. 하루, 이를, 사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날들이 계속되고, 어쩌다 며칠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으나 어딘가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애써 이해하고자 했다. 스무 살의 강경대 학생, 그도 어느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테고 아들과 함께 막 대학생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빛나는 젊음이지 않는가. 아들의 분노, 저항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 기독교장로회 주민교회의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셨던 어머니는 이 나라의 현실과 역사에 남다른 이해를 갖고 계시기도 하셨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바쁜 소리를 했나, 아이들이 은연중에 집안 분위기에 젖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태껏 다른 사람은 안하고 사는 고생을 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그건 잠 못드는 밤 아들 앞에 놓인 현실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무기력감에 젖어 이런저런 생각들을 끄집어 내어가며 수없이 되풀이해본 자책이기도 하다.

1994년,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젊은 날, 한때의 혈기와 분노이기를 바라셨다.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여느 어머니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또한 아들의 한 몸으로 감당해내기엔 너무



▲ 상훈군 가족의 단란한 한때.
이 해가 가기전 새로이 가족사진 찍게 되기를.

나 벅찬 일이란 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저 양심에 부끄러운 일없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랬지요.”

아들의 대학 생활은 내내 그렇게 이어졌다. 어머니의 조바심과 상심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소박한 바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만 가는 생활,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후배들과 함께 하는 생활, 동아리연합회장, ‘주사파’ 국면의 어려운 속에서도 총학생회장 출마… 그것은 아들의 ‘양심’이었고 자신이 기꺼이 선택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94년말, 아들의 군입대영장이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것이 아들이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셨다.

그러나 어렵게 만난 아들의 대답은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었다. 자신이 선택하고 걸어온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것은,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아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뒤로는 통 만나지 못했어요. 그전엔 그나마 가끔이라도 얼굴이나마 볼 수 있었는데… 어쩌다 전화가 걸려와도 내가 먼저 조바심이나 서둘러 끊어버리곤 했지요.”

1996년, “그런 세상을 살았어...”

어머니는 지금도 ‘한총련’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

컥 내려앉는다고 하신다. 수많은 학생들과 선배들이 느끼는 믿음직함, 든든함 이전에 어머니에게 그건, 아들의 안전과 직결된

어떤 예감, 놀라움, 충격이기도 한 것이다.

“96년 8월 연세대 일로 시끄러울 때였어, 학생들이 갇혀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수많은 전경들이 포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칫거리를 다듬는 도중에 뉴스를 듣다가 그만 손을 베어버렸지. 어찌나 심하게 베었던지 지금도 몇 바늘 퀘맨 자국이 남아있어...”

상훈에게는 누이동생이 있다. 건축을 전공한 상훈은 집을 짓고 디자인을 전공한 누이동생은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꿈을 함께 나누던 의좋은 오누이였다. 그러나 남매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에게는 꿈꿔하기만 했던 96년의 8월을 연세대에서 함께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신념이, 그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아픔이 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아픈 목소리는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았나 싶어, 그런 세상을 살았어...”

1997년, 수배와 도피

4기, 5기 한총련 조통위 정책실에서 일하던 상훈은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표의 북쪽 파견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식수배되게 된다.

“내손에 밥먹은지가 까마득해요. 뭘 좋아하는지도
이젠 모르겠어, 그전엔 만두를 좋아했는데 아직도 그런
지…”

여느 수배자의 부모들처럼 어머니도 명절날이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신다. 다들 모여있는데 유독 보이지 않는 얼굴, 상 위로, 문틈으로 언뜻언뜻 떠오르는 얼굴.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식 때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그렇고, 언제 한번 마음놓고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속만 시커멓게 타서 문드러지지.” 팔순이 넘으신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맨손주 생가이 유별하시면서도 “에미야, 속앓이지 말고 어디 공부하러 보냈다고 생각해라” 시며 대범하게 지내신다. 그러나 저마다의 가슴은 애끓는 고통에 힘겨운 가족들이다.

어머니는 그 가운데에서도 세월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다. 아들의 본격적인 수배생활이 시작되자 어머니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아니겠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애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민가협을 찾으셨고 같은 아픔과 슬픔을 지난 어머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의 그러한 노력은 또한 상훈이 힘든 수배생활을 든든히 버티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기도 했다.

언젠가 다가올 불행을 앞두고 슬픔과 좌절 속으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차라리 앞서 마주하겠다는 결심, 여느 어머니답지 않은 결단력과 차분함이 놀랍게 다가온다. 그런 어머니의 얼굴 위로,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한 상훈의 담담한 신념 어린 얼굴이 떠오름이 새삼스럽지 않다.

1998년, 체포와 수감

어머니의 뇌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1998년 9월 18일, 상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언제 한번 마음놓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들의 얼굴을, 어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부경찰서와 장안동 대공분실을 거쳐 안기부에서야 제대로 대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상훈이를 기다릴 때는 다리가 덜덜 떨려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애 얼굴을 보니까 수사관들에게 퍼부어 대고 싶고, 소리치고, 항의하고 싶고 그렇더라고…”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밤 몸을 뉘일 데는 있는지, 내일이면 가야할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지는 않는다. 아들은 당분간 그 곳에, 찾아가면 만날 수는 있는 곳에 있다. 그러나 푸른 수의와 창살에 묶여있는 몸이다. 그 젊은 피 가두어두고 서 있는 곳을 안다고 해서 무얼 할 것인가. 차라리 애태우고 조바심 낼지언정 자유로운 세상에서 빛나는 웃음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들이 없는 수배자의 웃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들에게로 향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늘 안쓰러움에 이리저리 떠돈다. 상훈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금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어머니 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면회후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힘없어 보이시기에 걱정이 되어 몇 글자 올립니다. 면회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1999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

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온 3년, 그리고 앞으로의 3년, 6년 동안 제가 집에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여러 모로 부모님께 큰 근심을 드린 것 같아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비관하지만은 않겠습니다. 더 듣는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나서게 될 테니까요.

제대로 된 비교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한때는 '양심수'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많은 사색과 학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치활동의 많은 밑거름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현재의 활동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건, 사람이 감옥에 있고 없음의 문제보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통치기반을 유지해나가는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제 걱정 너무하지 마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98. 12. 27. 아들 올림

1999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

"매번 기대하지 않으리라 독하게 마음먹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늘 한학과 고서를 가까이하시면서 좀처럼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는 지난여름, 오랫동안 여름휴가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 어느 때와 달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무심히 던지신 한 마디, "상훈이 나오면 바람이나 한번 쏘이고 올까…", 8.15 대사면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함께 나오는 '준법서약서' 문제. 상훈은 자신의 신념상, 조건이 따르는 자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서운함은 있었지만 가족들도 그의 신념을 존중해 주었다. 아무리 기대를 하지 않으리라 외면해도, 매번 뉴스에 귀기울이게 되는 심정, 번번히 낙담해오신 어머니는 이제 차라리 양심수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보기 싫으시다고 한다. 하지만 상관않으신다면 조금의 희망적인 이야기라도 들려오면 곰씹고 곰씹으며 기대를 키워오시는 심정, 어느 신문에서인가 얼핏 본 '밀레니엄 대사면'이라는 낱말이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발걸음이 저마다 바쁘다. 게다가 올해는 한 세기와 한 천년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마무리가 아닌가.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갖가지 희망찬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임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비인간적인 제도와 차별, 갈등도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고 새천년은 인간됨의 자랑스러움과 존엄함이 빛나길 누구나 소망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땅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자유를 볼모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들먹이는 비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청년 양심수 이상훈-그의 '십년간'과 가족들의 '십년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길기만 했다. 이 가족들의 고통이 이제는 한 세기의 마감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감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새천년에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최남규 선생님 병상을 지키는 회원들

고현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김현애님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이제 갖 서른을 넘긴 나는 불혹(不惑)을 바로 앞둔 그에게 말을 놓을 뻔했다. 옛되어 보이는 외모와 매우 따뜻한 미소때문이었다. 선생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고 단정히 인사를 하고 총총 병실을 떠나는 그를 붙잡아, 헛별드는 창가에 마주 앉으니 그의 눈빛은 미소보다 더 포근했다.

성균관대 조경학과 80학번인 그는 아무런 망설임없이 간병을 시작했다. 절친했던 친구를 암으로 앞서 보내며, 1년정도 간병을 한 일이 있어 일이 그리 손에 설지도 않다.

그가 후원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6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8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단지 8개월 갇혀 있었으면서도, 7, 8개월때는 조율증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갇혀있는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 고통의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8개월을 갇혀있으면서도 그런데, 몇십년을 갇혀 생활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어떠시겠어요? 하지만 장기수 선생님들은 종교인 이상의 순수함과 신념으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채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사심없이 사셨듯이 사심없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후원회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최선생님의 ‘눈빛이 굉장히 선해’ 눈을 마주치고 가끔씩 웃으실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김현애님은 자신의 그런 감상을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학교를 중도에 파하고 31살까지 공장에 들어가 생활을 했던 그는 감상주의는 아무런 실천적 힘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기 때문이다.

“병상일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간병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간병인들에게 삶의 의지라던가 그 밖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선생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끝까지 운동을 하시는거죠. 목숨이 다할때까지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생님께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느릿한 말투와 진지한 그의 눈빛을 보며, 불혹은 마음이 미혹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나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김현애님의 말대로 한 학생은 선생님을 간병하며, 이렇게 배우고 있었다.

11월 00일

18:00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 보면 계속 도라지꽃이라고 말씀하심

18:30 계속 다리 운동시켜 드리며 잠을 못자게 하고 있음

18:45 호스를 자꾸만 빼려고 하셔서 침대 아래쪽으로 팔을 묶음

19:15 계속 호스 빼시려고 해 실랑이

20:00 결국은 포기하신 듯 물끄러미 바라보심. 보시다가 가슴에 있는 지리라는 글씨를 가르키심. 제가 지리학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상념에 잠기신 듯 두눈을 지그시 감으심. 간호사가 와서 팔을 묶은 것 교체

20:30 대변 갈아드림. 엉덩이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니 엉덩이를 들어주심. 팔에 묶은 것이 불편하신지 고통스러워 하심

23: 15 눈감고 계심. 입은 오물오물.

아까 육창 소독하기 전 또다시 제 티에 있는 지리를 보시고 감회에 젓는 듯 하시더니 “통일은 언제 되냐”고 물으십니다.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힘써 통일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주경임님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선 주경임님은 선생님께 인사를 하며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한 주만에 눈에 띄게 선생님이 수척해지신데다 선생님의 기분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서부터 내내 지난 주의 일을 생각하며 유쾌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선 탓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선생님, 저 도라지꽃이예요. 기억하시죠? 도라지꽃이요.”

선생님은 그저 맑은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가까스로 아는 체를 하실 뿐, 선생님 특유의 낙천적 미소를 보내시기는 역부족인가 부다.

지난 주, 그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선생님,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도라지꽃이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도라지꽃이다.”

어리둥절한 그에게 홍경선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었다. 남에서는 연인들끼리 장미꽃을 주고 받지만, 북에서는 들판에 흔하게 핀 도라지꽃을 애인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선물을 한다고.

선생님의 애인이 된 그는 더없이 기분이 좋아져 선생님의 머리를 감겨 드렸다. 하도 오랫동안 감지 않아 비누거품도 일지 않는 선생님의 머리를 세번 네번 비누칠을 해 감겨 드리고 나니 선생님의 백발이 부드럽게 빛이 났다. ‘선생님은 지금 얼마나 시원하실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뿌듯해졌다. 편안하게 누우신 선생님의 손을 잡고 노래도 불러 드렸다. 선생님은 간혹 어눌한 목



▲ 왼쪽부터 성화자, 주경임, 김현애, 이정태님.

소리로 따라 부르셔서 근사한 합창이 되기도 했다.

또 훨체어에 앉아 뛰노는 아이들을 보느라 천천히 이리저리 움직이는 선생님의 눈동자를 볼때는 얼마나 기뻤던가.

지난 주만 해도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눈동자만은 맑게 빛나던 선생님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 주경임님은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속이 상하다.

10년 동안이나 후원회비를 냈으면서도, 얼굴없는 회원으로 활동하던 남편 송창학님을 따라 그는 올해 수련회에 참가 했다. 그곳에서 장기수 선생님들을 뵈었고, 뭐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다. 착한 마음씨의 발동이었다.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이 인연이 되어 최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간병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그저 보호자 정도의 역할만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대변을 받고, 욕창을 치료하는 동안 고통에 몸을 바르르 떠시는 선생님을 뵈며 ‘덜커덕’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선생님을 보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아이를 키워냈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뭔으로

주워진 일이니, 있는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자.'

일곱 살 난 아들과 다섯 살 난 딸을, 월요일이면 동네 아줌마에게 맡기고 선생님을 찾아 온다는 착하고 썩씩한 아줌마 주경임님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듈다.

"선생님께 애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헤어진 부인의 이름을 또렷이 대세요. 고향을 물으면 '함북 명천이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통일되면 간다'고 힘차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 선생님을 봐며 막연하게 생각하던 통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그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는 만큼 그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

"선생님, 너무 내려와 계시거든요? 위로 좀 올려 눕혀 드릴께요." 라며 선생님을 침대위로 힘겹게 끌어 올리는 그의 손이 너무나 아름답다.

성화자님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베이지색 스웨터, 배낭을 맨 마른 몸매의 그가 병실로 들어서자 병실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전직 간호사 출신인 성화자님(38세)의 손놀림은 확실히 달랐다. 선생님 입안에 낀 백태를 제거하기 위해 거즈에 물을 묻혀 온 그는 '선생님, 아—' 하고 말하자 선생님은 착한 학생처럼 소리없이 아—하고 입을 크게 벌리신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는 선생님 입안에 거즈를 구겨 넣어 마른 입을 적시고 입안을 청소한다. 선생님에게 미음을 투여하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다섯 아이의 엄마로써도 손색이 없는 솜씨다. 그에게는 다섯 명의 딸이 있다. 열여덟살짜리 딸이 세 명에, 열일곱살짜리 딸이 두 명이나 된다. 세 쌍둥이, 두 쌍둥이?

그의 현재 직업은 보육원 교사이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그는 간호사 일을 접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육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의정부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그룹 흠품제(보육

원생들에게 가정생활을 경험하게하고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아파트를 얻어 교사 한 명과 소수의 학생들이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하게하는 제도)의 교사로 다섯명의 딸을 데리고 엄마노릇을 하며 그들과 생활하고 있다.

그가 최선생님을 처음 뵈 것은 93년이다. 당시 신옥 선생님(신인영 선생님의 누이동생)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던 그는 치매증상으로 입원한 선생님을 돌보며 각별한 애착을 느꼈다. 정이 많은 최선생님은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작은 정성에도 많이 감사해하곤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한달에 두세번씩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들을 찾아가 뵙곤 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을 병원에서 돌보게 되었다.

"선생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게 너무 속상해요. 처음엔 미음도 한번에 280cc 씩 드셨는데 지금은 100cc 정도밖에 못 드십니다. 지난 주만해도 열가지를 여쭤보면 아홉가지를 대답하셨는데, 오늘은 2개정도 밖에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리고 지난 주엔 장난도 치고, 눈짓도 많이 하셨는데… 체력이 딸리다보니 정신력도 많이 소모되었나 봐요. 현재의 선생님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지 체력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버틸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처음 교대할 때와는 달리 병실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선생님의 힘없는 모습에 주경임님도, 성화자님도 모두 맥이 빠진 채, 그저 선생님의 몸을 안마해 드리기만 한다. 그 손길들에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있다.

"올 때마다 선생님의 욕창이 커져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최대한 공기를 통하게 해야하는데,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시니 다른 간병인들 혼자서는 선생님을 돌아눕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였는데 지금은 손바닥 반 만하게 커졌으니, 선생님도 무척 괴로우실 겁니다. 저렇게 자꾸 커지다가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텐데…"

선생님의 손을 잡고 깊은 선생님의 눈을 쳐다 보며

주워진 일이니, 있는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자.'

일곱 살 난 아들과 다섯 살 난 딸을, 월요일이면 동네 아줌마에게 맡기고 선생님을 찾아 온다는 착하고 썩씩한 아줌마 주경임님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듈다.

"선생님께 애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헤어진 부인의 이름을 또렷이 대세요. 고향을 물으면 '함북 명천이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통일되면 간다'고 힘차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 선생님을 뵈며 막연하게 생각하던 통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그의 손길로 보살핌을 받는 만큼 그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

"선생님, 너무 내려와 계시거든요? 위로 좀 올려 눕혀 드릴께요." 라며 선생님을 침대위로 힘겹게 끌어 올리는 그의 손이 너무나 아름답다.

성화자님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베이지색 스웨터, 배낭을 맨 마른 몸매의 그가 병실로 들어서자 병실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전직 간호사 출신인 성화자님(38세)의 손놀림은 확실히 달랐다. 선생님 입안에 긴 백태를 제거하기 위해 거즈에 물을 묻혀 온 그는 '선생님, 아—' 하고 말하자 선생님은 착한 학생처럼 소리없이 아—하고 입을 크게 벌리신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는 선생님 입안에 거즈를 구겨 넣어 마른 입을 적시고 입안을 청소한다. 선생님에게 미음을 투여하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다섯 아이의 엄마로써도 손색이 없는 솜씨다. 그에게는 다섯 명의 딸이 있다. 열여덟살짜리 딸이 세 명에, 열일곱살짜리 딸이 두 명이나 된다. 세 쌍둥이, 두 쌍둥이?

그의 현재 직업은 보육원 교사이다.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던 그는 간호사 일을 접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육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의정부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그룹 홈제도(보육

원생들에게 가정생활을 경험하게하고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아파트를 얻어 교사 한 명과 소수의 학생들이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하게하는 제도)의 교사로 다섯명의 딸을 데리고 엄마노릇을 하며 그들과 생활하고 있다.

그가 최선생님을 처음 뵈 것은 93년이다. 당시 신옥 선생님(신인영 선생님의 누이동생)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던 그는 치매증상으로 입원한 선생님을 돌보며 각별한 애착을 느꼈다. 정이 많은 최선생님은 얘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작은 정성에도 많이 감사해하곤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한달에 두세번씩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선생님들을 찾아가 뵙곤 했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을 병원에서 돌보게 되었다.

"선생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게 너무 속상해요. 처음엔 미음도 한번에 280cc 씩 드셨는데 지금은 100cc 정도밖에 못 드십니다. 지난 주만해도 열가지를 여쭤보면 아홉가지를 대답하셨는데, 오늘은 2개정도 밖에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리고 지난 주엔 장난도 치고, 눈짓도 많이 하셨는데… 체력이 딸리다보니 정신력도 많이 소모되었나 봐요. 현재의 선생님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지 체력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버틸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처음 교대할 때와는 달리 병실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선생님의 힘없는 모습에 주경임님도, 성화자님도 모두 맥이 빠진 채, 그저 선생님의 몸을 안마해 드리기만 한다. 그 손길들에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있다.

"을 때마다 선생님의 욕창이 커져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최대한 공기를 통하게 해야하는데,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시니 다른 간병인들 혼자서는 선생님을 돌아눕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였는데 지금은 손바닥 반 만하게 커졌으니, 선생님도 무척 괴로우실 겁니다. 저렇게 자꾸 커지다가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텐데…"

선생님의 손을 잡고 깊은 선생님의 눈을 쳐다 보면

32 더하기 10

- 젖소떼에게 둘러싸인 앉은뱅이

안일순 · 소설가

1 心魂의 청람빛깔

사람마다 제 성정따라 색깔이 있다면 장호 선생은 무슨 색일까. 백자항아리의 은은하고 그윽한 흰빛이라 할까. 청람빛이라 할까. 가만히 마주하고 앉자 그에게서 밤새 어둠을 머금은 먹빛 항아리 위로 고이는 새벽녘 프르스름한 기운같은 서늘한 향이 번져온다. 俗脫 속 탈한 老僧 노승처럼 눈동자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그의 참 맑은 얼굴을 마주보고 앉자 淸靜 청정한 心魂 심혼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기운에 감염된듯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진다. 소나무아래 선정에 들어간 신선같기도 하고 인도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 같기도 하며, 마르크스 같기도 한 그의 얼굴에서 년륜 속에 익어간 노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자극한 것인가 새삼 놀라게 된다.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 목숨을 다하여 영글은 자연인, 다가올 죽음마저 땅에 귀의하듯 평온하게 준비하며 고요히 숨결을 가다듬고 있는 듯한 그의 옆모습. 단아한 그의 허연 수염과 백발에서 마른 풀잎새 같은 향기가 난다.

그러나 저 평온한 듯한 초연함에 도달하기까지에는 그 얼마나 무수한 몸부림이 있었을까. 물 위에 뜬 백조가 유유히 한가로와 보이지만 실은 물아래에서 발길질이 쉬임없듯. 중국대륙의 막노동꾼으로, 장안과 공산당원으로, 빨치산 유격대로, 신문기자로, 반병거리로 살아온 그의 80년 세월을 듣고나면 소심줄처럼 억센 목숨을 이으며 살아온 치열함이 어떻게 저러한 평화로움에 다달을 수 있는지 기이하게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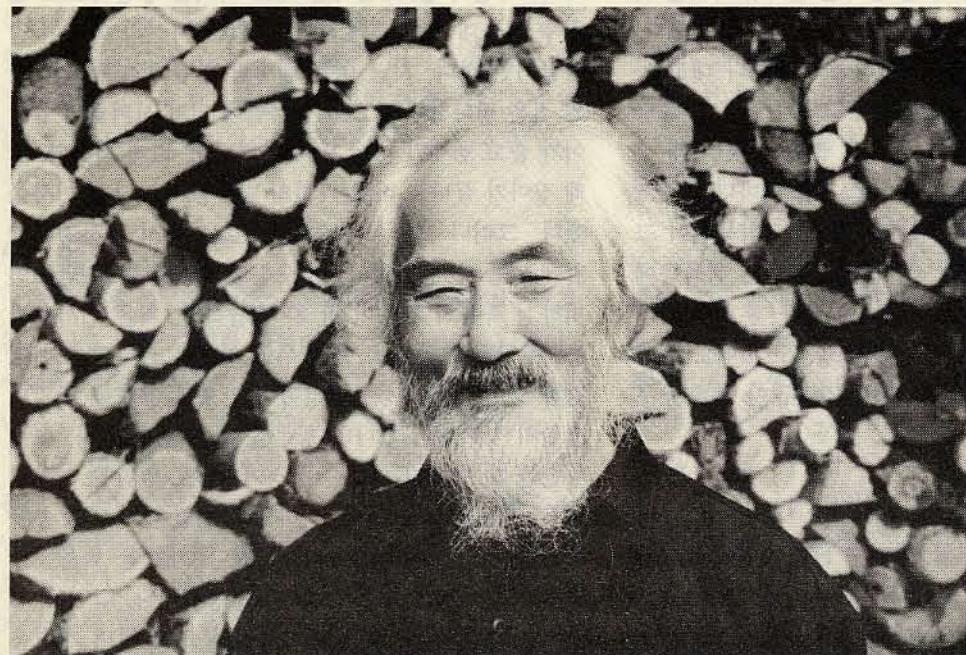
2 失語症 10여년

그는 파천 지금의 '한백의집'에 오기전 외돌톨이로 세상과 단절된 채 백여마리의 젖소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앉은뱅이 10년을 보냈다. 감옥에서 32년

간 살다가 1991년 출소하게 된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노태우의 은덕(?) 때문이었다. 70세 고령의 노인들이 삼십년 넘게 감옥에 있다는 소문이 한국밖에서 나돌자 세계유례 없는 이 살인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나라 밖으로부터 거센 항의가 벳발쳤다.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 외여론에 몰려 비전향 장기수들에게는 요지부동으로 굳게 닫힌 육중한 철문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문을 나서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였다. 첫째, 법무부 서류로 호적상 만 70세 이상일 것. 둘째, 형 확정 후 만 30년이상 수형기간을 넘었을 것 이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비인도적 인권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도적인(?) 조처로 칠순을 넘긴 머리 허연 수인들-방재순, 김우택, 허영철, 박봉현, 그리고 장호선생이 비전향 장기수로서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32년간의 지긋지긋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옥문을 걸어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그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일까? 감옥문을 나서서 열걸음도 채 못넘어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무형의 철책선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출소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보안관찰법이라는 해괴한 괴물이었다. 역시나 신문을 장식했던 그들의 화려한 석방은 노정권의 후덕함을 미화하는 며칠간의 선전용 들러리였을뿐이었다.

혹덩어리처럼 등에 매어달린 죄, 그 무슨 악성 전염병 보균자라도 되는 냥 그를 격리시켜놓고 형사들은 수시로 찾아와 동태를 살폈다. 파출소 정보부, 경찰서 정보과, 여주지검 경찰서,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술한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동정을 살피고 돌아갔다.

"어딜 다녀왔는가?" 여행 목적이 무엇이었나?" 누구를 만났나?" "무슨 얘기를 했는가?" 어디서 전화가 왔나?"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이들 관찰대상자들은 주요 활동 사항, 여행의 장소와 목적, 통신 회합한 다른 보안



관찰 대상자나 주요인물에 대한 인적사항, 일시, 장소, 대화내용 등 3개월마다 관찰경찰서에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이를 계율리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검사나 경찰관이 '누구 누구와는 절대 회합 통신을 하지 말라, 특정 집회나 행사들에 참석하지 말라, 하는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또 보호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두를 요구하는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이유없이 출두하여야 한다.

그들은 수시로 불쑥불쑥 찾아왔고 세상과 오랜동안 격리된 채로 살아왔던 그에게는 모든것이 두렵기만했다. 하루 한시간 남짓의 운동시간도 형사가 그 코스를 정해주었다.

사회는 철통같은 반공체제, 거기에 다시 보안관찰법이라는 무형의 형틀에 묶이어,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을 탐색하는 보이지 않는 눈길에 이중삼중 포위되어, 그는 백여마리의 젖소로 둘러싸인 절해 고도에 홀로 고립되었다. 스스로 위축된 그는 감히 세상 밖으로 나가 누굴 만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주민등록증도 없기 때문이었다. 엄연히 합법적으로 출소를 하였음에도 그는 언제나 전향주문에 시달렸다.

전향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접하지 못하는 그는 실어증에 걸렸고, 그가 마음놓고 대화 할 수 있는 상대는 젖소들 뿐이었다. 그리고 주말마다 밀반찬을 갖다주고 입을것을 갖다주는 바로 손아래 누이만이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였고 그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었던 보

호막이었다.

"젖소들이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목초를 먹고 노니는 것을 보면 뇌들이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멀리 산을 보고 생각하죠. 나도 저렇게 의연하게 살아야지. 지나가는 구름을 보고, 소를 보고 말을 걸어보죠. 중얼 중얼 독백도 많이 했어요. 목부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쪽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쉽게 다가설 수 없었어요. 차라리 감옥안 이 그리운거예요. 거긴 동지들이 있으니까..."

목부들도 제집으로 다 돌아가고 젖소들도 우사에서 잠든 밤. 노을 빛도 사위고 창문으로 미친듯 바람이 사납게 두들기는 모든것이 꽡꽝얼은 겨울 날이면, 콘테이너로 된 그의 간이 거처에 오도카니 홀로 앉아 그는 뼈속 시리도록 고독했다.

비록 찬 냉방이었지만 그래도 감옥에서는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옆방에서는 동지가 숨쉬고 있었고, 단식투쟁을 하면 같이 죽음을 각오했던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고난을 함께 나눴기에 덜 외로웠다. 못먹고 배곯았어도 언살 부비며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이없는 허공에 줄 끊어진 연처럼 차거운 하늘에 혼자 떠도는 그의 마음은 늘 춥고 시리기만했다. 그는 광꽝 얼어붙은 겨울 하늘 허공의 벽에다 대고 동지들에게 수없이 타전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십여년. 그는 목젖 아래 아프게 용어리진 소리를, 동지들이 그리울 때마다 내지르고 싶었던 소리를 밤마다 삼키고 삭였다. 침묵만이 그의 오랜 벗이 되어주었다. 생각과 감정들은 침묵속에 담금질되어 안으로 안으로만 영글어갔다. 혼자 버려져 비바람에 견디는 말없는 석불처럼 고통도 비애도 욕망도 세월을 넘어서 침묵안에 고이며 가라앉아 아른한 무늬처럼 희미해져갔다.

3 완전한 출소

그러던 어느날 99년 3월, 장기수 17명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번쩍 트였다. 그러나 선듯 찾아나설 용기가 없었다. 몇번이고 용기를 내었다가도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그후 다시 뉴스월드에 동지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고 용기를 내어 낙성대 '만남의 집'을 찾았다. 거기서 김석형 최남규 등을 만났다. 그리고 옆방에 살던 안영기 선생이 과천 '한백의 집'에 공동체를 곧 만들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한백의 집'에 합류했다. 간판을 달고 김은환, 홍문거, 안영기네 식구가 밥상을 놓고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밥을 매일 먹고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민가협과도 연락이 닿고..... 그는 몇달간 꿈처럼 지냈다. 은성한 불빛 아래 밥상을 놓고 둘러앉은 옛동지. 뜨거운 국 국물을 후룩 후룩 같이 나눠 먹으며 그는 믿겨지지않은듯 자꾸만 그들을 바라보았다. 굳어진 몸과 마음이 풀리면서 그는 비로소 모진 세월을 에돌아와 이제서야 비로서 그들과 함께 출소를 한 기분이었다. 십여년만에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참된 정신적 안정을 찾았다. 32 더하기 10, 꼭 42년 만의 완전한 출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엔 오랜 실어증으로 굳은 혀가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면 속엣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곤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였고 이제는 한번 말문이 터져나오면 어느새 열변이 되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그는 한백의 집 식구들이 늘 안스럽고 미안

하다. 자신이 좀 모질기만 해도 거처를 좋은곳으로 옮길수 있는데 차마 그렇게 할수 없는 자신의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여름 네사람이 함께 마련한 한백의 집은 지하방인 탓으로 장마철이 되자 시퍼렇게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바로 과천의 별양동으로 다시 이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돈으로는 역시 지하전세방 밖에 얻을 수가 없었다. 비 오는날 창문을 모두 닫으면 지하실 특유의 기운이 꽉 차 습습하다. 처음 이사와서는 주인집 마당으로 면한 부엌 창으로 커다란 도베르만과 달마시안이 킁킁거리며 창안으로 고개를 디밀며 맹렬히 짖어대어 그나마 창문을 열 수도 없었다. 송아지만한 개 두마리는 무슨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지하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지하의 네사람은 지상의 송아지만한 개 두마리를 올려다보았다. 개들은 먹을것을 몇번주고 이제는 좀 낯이 익자 조용해졌다. 그러나 창앞에 떠억 버티고 앉아 텔비듬을 부르르 텔며 개털을 날리고, 식사때마다 먹을것을 달라고 큰코를 들이밀며 염치없이 벌름댄다. 손님이라도 오면 다시 시끄럽게 짖어대어 답답하지만 창문을 닫아야한다. 우사의 냄새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어쩐지 식구들에게 미안하다. 오랜 영어 생활로 수십년간 음습한 곰팡내에 찌들은 몸들인데 여전히 햇빛모자란 지하에서 주인집 개들이 개구멍처럼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지하의 거처. 자신이 좀더 모질고 세상을 알았더라면 한백의 집식구들 모두 하루종일 햇살 비치는 지상의 방을 마련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럴줄 알았으면 누이와 일찍 상의해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 놓을것을.

그의 부친은 서울마포에서 정미소와 빙고업을 하던 상당한 자산가 였다. 부친이 남긴 유산은 법적으로 자연히 장남인 그의 몫으로 남았으나, 오랜 형무소에서 그것도 간첩죄로 살고있는 그였기에 유일한 혈육인 손아래 누이가 관리해왔다. 누이의 남편은 부친의 재산을 기초로 무역업을 해 육십억이 넘는 자산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매부도 죽고 누이는 늘 당연히 오라버니가 자신보다 앞서 세상을 뜰것이라 생각해 아무런 법적 정리도 하지않고 재산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전 갑자기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이 된채 몇년간 고생하다가 한마디 유언도 못하고 타계하고 말았다. 미국 유학

에서 돌아온 조카딸 넷은 삼촌에게 그의 몫으로 고작 천만원의 전세금만 넘겨주었다. 최근에는 그가 가끔은 찾아가보고 싶은 목장 까지 처분해 버리고 말았다. 세 상물정에 어두운 데다가 사유재산에 대해 개념조차 없는 그는 조카들에게 한마디 권리 주장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왜?

그렇다면 이토록 성품이 온유하고, 악착스러운대라곤 하나도 없는 순진한 사람이 그것도 '배부르니죠아' 아쉬울 것 없는 부잣집 큰아들이 무엇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무산자들의 땅으로 월북을 한것일까.

그는 1920년 11월 29일 서울 마포항의 요지인 마포동에서 어머님 김정숙과 아버지 장기열의 칠남매중 장남으로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정미소와 빙고업(겨울에 언 마포강물을 떠서 지하창고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파는것)을 했다. 아버지는 항일의식이 높아 평소에도 늘 경찰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부터는 두문불출하다가 식구가 모두 월북했다.

남동생들은 모두 인민군에 복무하다 한명은 전사하고 여동생 하나는 평양대폭격 때 죽었으며 이남에는 유일하게 손아래 여동생만이 서울에 남아 살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주변의 선배나 진보적인 아버지 친구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동네에서도 소그룹운동에 참여한 그는 마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보성고등보통학교 3년을 다니다가 더 넓은 세상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다.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얘기가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는 스무살나이에 고향을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협난한 노정을 떠난다. 부산, 목포, 청진, 원산, 진남포 등지를 돌아다니며 부두노동을 하고, 장충, 하얼빈, 봉천, 금주 등 만주일대와 북경, 상해 등 동북지역을 모두 누비게 된다. 여비가 없어 톱과 망치들 들고 돌멩이로 등짐을 지며 운하건설에서 '쿠리' 등과 함께 토건일을 하며 벽돌공으로 부두 하역노동자로 떠돌면서 생존의 벼랑 끝에서 노동의 괴로움을 직접 체험했다. 또 동경에 가서 친구들과 정치철학공부를 더해보려고 동경 명지대를 다니던 친구의 교복을 입고 밀입국해 들어가 맑스 레닌주의 연구클럽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 신분이 드러나자

추방당하기도 했다.

중국을 떠돌면서 그가 겪고 보았던 것은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이었다. 그중 가장 비참했던 것은 조선인 위안부들이었다. 잠자리와 먹을것 마련을 위해 위안소에서 그들과 같이 기거를 하게된 그는 누구보다 위안부들의 참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거의가 전라도, 경상도 가끔 평안도 농촌에서 팔려온 처녀들이 온갖 천대를 받고, 수모를 겪으며 사는거예요. 중국위안부는 '만빼' 조선위안부는 '센빼'라고 하며 천한 이름을 붙여 멀시했지요. 속아서온 여자들이 태반이예요. 성병들어 입원시키면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나마 벌어야되는데 입원하면 돈을 못버니 대부분 몸값, 빚값으로 저당잡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애가 생기면 남을 쥐버리기도 하고 일본인 의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검진하더군요."

그는 만주대륙을 떠돌며 조선민족이 진정 어떻게 해방되어야 하는가 고민했다. 44년 다시 귀국해 함경북도 아오지 단광에서 일하다가 서울에 온 45년,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 되자 조선 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하나였던 서울 장안동의 장안파 공산당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이 들어오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일은 공산당을 해체하고 말살하는 일이었다. 미군들이 체포령을 내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낄뿐만 아니라 미군정에서는 도저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45년 9월 월북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1948년 소환되었다. 그해 남조선 인민유격대 제 10지대 5인조로 강원도 화천 3.8선 부근 배치고개에서 유격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전쟁을 맞는다. 그러다가 경북 영주, 대구 팔공산 등지에서 구빨치산과 합류했다. 다시 조쏘문화협회 강원도 위원회에서 선전부 부부장으로 일했고 50년에는 서울로 와서 서울조선노동당 서울시당 기관지인 해방일보 논설기자로 일하게 된다. 58년 초 소환되어 남조선 정치공작원으로 파견, 임무를 수행하고 단독 귀환하던 중 문산지역에서 체포되었다. 1958년 8월 무기형을 확정받고 91년 2월까지 32년의 옥살이를 하게된 것이다.

5 '싱글벙글' 감옥

힘겨웠던 32년간의 감옥생활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전향 공작 때였다.

대구시절 육각이 난 방망이 두개가 다 부러져 나가도록 권주임은 직접 그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다. 지켜보던 간수들도 차마 못보겠는지 도중에 나가버렸고 매를 맞은 그는 몇번이나 깨무라쳤다. 왼쪽 다리가 시커멓게 죽어 자신이 보기에도 참혹해 동지들이 혹시라도 알까봐 보름간 운동도 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의사에게 보이니 그도 고개를 돌렸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감옥생활이 뭐가 좋은지 장호 선생은 늘 싱글벙글이었지' 하고 말한다.

그는 다른 장기수들에 비해 잔병하나 없이 건강한 편이다. 어떻게 '싱글벙글'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혁명적 낭만주의자' 이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대답 한다. 그가 늘 웃는 것은 내일의 역사를 낙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정당했다는 확신이 그의 미소의 비밀이었고 병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감옥생활을 '싱글벙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누이의 희생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누이는 자신의 오빠가 '간첩'으로 옥에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텔옷을 만들고 싶어도 집안에서 하지 못하고 텔실을 들고 공원벤치로 나왔다. 차거운 감방안의 오빠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가는 비벼실을 안쪽에, 굵은 공작실은 바깥쪽으로 해서 늘 아래위 이중으로 된 뜨뜻한 텔쉐타를 짜서 넣어주었다. 수형생활에서 돈은 큰 위력을 발휘한다. 대부분 장기수들이 이남에 무연고가 대부분이어서 돈없이 혹독한 수형생활을 견뎠으나, 그는 유일하게도 삼십년이 넘도록 누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 누이가 보내주는 영치금으로 그는 비타민제, 구하기 어려운 인삼토니콩 같은 귀한 약. 링크 모포, 내복, 많은 책등을 마련해 어려운 동지들과 함께 나눴다. 사랑은 나눌수록 확대재생산된다. 그의 險助음조로 많은 동지들이 온기를 나눠 갖으며 긴긴 옥살이를 넘길수 있었다. 감옥안에서 그는 주로 독일어와 원자물리학, 대통일이론(물리학) 등을 공부하고 늘 조용히 사색하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바느질 하기를 좋아했다. 잔병 한가지 없이 늘 심신이 건강한 그는 요즘도 허리굽혀 땅닿는 운동을 하루 500여번이 넘게 한다.

6 바보중의 바보

만주별 하르멘, 봉천을 유랑하던 집시 기질 일까. 그의 옷차림을 보면 보헤미안 같기도 하고 히피같기도 한 자유분방형이다. 머리에는 체계바라가 그랬듯 까만 베레모를 꾹 눌러쓰고, 바지통이 널널한 청색 힙합바지를 척 걸치고 나서면 거리에서 청소년들과 열려 한판 힙합춤이라도 추고 올 것 같은 품새다. 도무지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세상의 규범이나 습속에 얹매지 않은 낭만적이고도 자유로운 그의 정신 때문일지도 모른다. 초연한 듯, 무연한 표정은 이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것처럼 속탈해있다. 우주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아마도 인간의 역사 역시 한갓 개미성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배어든 탓일까?

아름답게 늙은 이 할아버지는 유난히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등 고전음악을 즐겨들으며 늘 조용히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예술품을 사랑하는 그의 방은 갓 초례를 마친 신부의 방처럼 아기자기 낭만적이다. 그러나 그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은 혁명이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한 것中最고의 예술 형태는 혁명이예요."

나, 이랬노라 내세우지도 않고, 천한일 궂은일도 마다않고 그 노구로 찻집 청소를 돋는 그. 살아온 내력을 캐물어도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해 도무지 헛갈리기만 했는데 같이 사는 동지로부터 귀동냥해 그의 숨은 이야기를 그나마 캐어낼 수 있었다. 주위의 동지들은 그를 '맑다. 여리다. 곱다. 얘기다.'고 표현한다.

언제가 나는 송광사에 갔을 때 구산 큰스님의 등을 주물러본 적이 있다. 스님의 등은 어찌나 부드럽고 여린지 그저 얘기 같았다. 묻고 말하고 웃는 것도 꼭 얘기 같았다. 큰스님이라더니 그저 얘기 같잖아! 이런 분이 뭐가 그리 도력이 높다고 큰스님이라 할까? 실망하며 의문을 가진적이있다. 뭐 말할게 있어야지요. 하고 그저 웃기만 하는 천진난만 어린애. 수십억이 되는 자신의 유산도 내것이라 권리 주장도 못하는 물렁한 바보. 거물 남파간첩이라더니 순전히 얘기 같잖아! 바보 중의 바보 장호 선생을 보노라니 어쩐지 그때의 그 큰스님 생각이 난다.

시민들이 타는 버스를 통째로 경찰서로 연행, 친구를 붙잡아 갔습니다

김규환 · 광운대 학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운대학교에 다니는 김규환입니다.

11월 4일 오후부터 밤 11시 사이, 저희 대학교 공대생 6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연행 소식을 들은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왜 경찰이 친구들을 연행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경찰에 잡혀갈 일이라고는 하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일도 없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일도 없을뿐더러,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검거령이 내린 한총련 대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잡혀간 곳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홍제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들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이적단체인 칫卜箒 자주대오是 공대 조직원이라는 것인데,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한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내용이기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연행된 여섯 명 중 두명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두명은 휴학중인 학생으로, 그 중 한명은 고향집에서 농사 일을 돋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연행 이틀후 이루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섯명 중 두명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명의 친구들은 아직도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에 의해 터무니 없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조사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에 씌여진 내용들은 소설을 연상하리만큼 허황된 것이고 얼핏 보기에도 쉽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학원가에 운동권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연행 · 구속된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는 1년 전 공대 학생회 선거 당시 같은 선거운동본부의 운동원이었다는 사실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찰은 이들 중 김기호(전기97 전기과 학생회장, 공대 정후보 예정자) 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

내버스를 통째로 연행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1월 4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김기호 학생을 비롯한 8명의 광운대 학생이 명동성당 범민련농성단을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타고 있던 48번 시내버스가 노선을 벗어나서 노원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버스 안에 타고 있던 8명의 친구들은 모두 피곤한 상태여서 대부분 졸고 있어, 버스가 노선을 벗어난 것을 노원 경찰서에 다가서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을 받은 학생들이 기사에게 항의했으나, 운전기사는 이미 3명의 형사들에게 둘러쌓인 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원경찰서로 버스를 몰았다고 합니다. 버스가 경찰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틈에 한 학생이 운전석 옆의 스위치를 올려 7명은 빠져나왔으나 김기호 학생은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시민이 타고 있는 버스를 통째로 연행하여 공포감을 유발하고 불특정인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치던 이근안이 자수하기까지 12년 세월동안 검거는커녕 단서조차 잡지 못 하던 경찰이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전국 대학의 학생회장들을 잡아들들일 때에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폐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 조차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잡아들일 때는 이처럼 기민함과 과감함을 보이는 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못된 법은 없어져야 하고 잘못된 법에 의해 구속 · 처벌된 사람들은 풀려나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하루빨리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지난 11월 11일, 민가협 305회 목요집회에서 광운대 학생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한 내용이다.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열한번째,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이번 공연은 음악적으로 잘 짜여지고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벌써 11번째 이르렀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임기란 상임의장님의 말씀대로 '인간 정신 양식樣式에 도움'이 될 만한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11월 내내 궁리하고 연구하다가 11월 끝막음에 이르러서야 겨우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48년 제주 4.3과 여순, 국가 보안법 제정, 50년 전쟁과 수많은 노근리들, 70년대 독재와 인권유린, 인혁당, 80년 광주, 98년 국민의 정부… 우리들의 삶〉

공연 1부에서는 우리 대중 음악으로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고발하는 음악극을 꾸밀 생각입니다. 2부에서는 지금 감옥 안의 양심수를 표현하면서 인간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모였음을 외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폭력과 광기' 외에는 다른 무엇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폭력과 광기'가 되풀이되지 않게 되새김을 하려고 합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다함께 외칠 수도 있고 합창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구상을 담은 포스터는 11월 30일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마음 줄이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무실 실무자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인쇄되기 전에 자봉단 발대식부터 가졌습니다. 11월 25일 이근안 재판을 감시하기 위해 성남 법원에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신 어머님들의 지친 모습을 마주하고 자봉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의 지치고 초췌한 모습, 마른 입술에서 젊은 친구들은 개인의 명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가협이라는 이름 아래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장기수 선생님들의 생애를 바탕으로 새 천년에는 정말로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입장권에 번호를 매기고 도장을 찍기 무섭게 예약 표



를 발송하고 단체들마다 안내문과 포스터를 넣어 보내고 포스터를 붙이려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움직임을 따라 1초씩 움직이는 듯한 숨가쁜 밤이었습니다. 밤 12시쯤에야 사무실을 둘러보니 '난리가 나면 이러하겠구나' 싶은 풍경이었습니다.

자봉단들끼리를 위해 커다란 밥솥과 전기밥통까지 빌려다 놓았는데 밥 할 때마다 주걱은 밥통바닥을 긁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어머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 준 김치가 전부여서 배추잎 한 장도 참 여러 갈래로 찢어야만 먹는걸 서로 허락하는 살벌한 밥상이었는데도 모두들 즐거워 합니다.

이번 주 내에 공연 팜플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연 표를 아직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표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공연 표가 필요하신 회원들께서는 사무실로 전화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서울 번화가 곳곳에서 포스터를 흔들며 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지나시다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 표를 팔고 있습니다!" 하는 외침이 들리면 아는 체를 해 주십시오. 도우미들이 훨씬 기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목소리를 보태주시면 더욱 신이 나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들, 12월 19일, 장충체육관에서 뜨겁게 만나뵙길 기대해 봅니다.

1. 인천에 사시는 황영태 선생님과 나사렛 한방병원으로 정순덕 선생님 문병.
- 보라매병원으로 최남규 선생님 문병. 월요일은 양심수후원회에서 간병하는 날. 이정태, 성화자, 정형근, 안병길, 신현부 회원등이 애쓰다.
2. 고려대 안암 병원으로 신인영 선생님 문병.
- 10차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장이었던 전관스님(후원회 감사)의 두 번째 공판(서울지방법원 523호실)
- '국가보안법 철폐 대국회 총력투쟁주간 선포식'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 주최/국회 앞). 대표단,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국보법 폐지 서명자 명단(290,000)과 청원서 국회에 접수.
3.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경제침탈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 농성단', 단식에 들어가며 기자회견(명동성당 농성장).
- '불평등한 SOFA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관/참여연대 사무실).
- 양민학살규탄, 불평등 SOFA개정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5명을 종로경찰서에서 연행한 것과 관련, 경찰서 방문하여 항의하고 학생들 면회.
4. 민가협 304회 목요집회. 고문 등 인권범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집회로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의 여는 말씀에 이어 박충렬(86년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4일동안 인근안에게 관찰뽑기, 통닭구이 등의 고문을 당함), 함주명 (83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63일간 전기고문, 물고문 당함), 이장형 (84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67일간 고문당함) 씨의 사례발표. 권오현 공동의장이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 낭독
- 유가협 국회 앞 천막농성 1주년 맞아 '특별법제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 유가협, 민가협, 전국연합, 민주노총등.
-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 맞아 특별법제정 결의대회.
5. 유엔 인권 이사회, 91-95년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
- 6~7. 양심수후원회 99회원역사기행 '강화지역 역사 유적과 민족문화 유산답사'. 모두 63명이 함께 하여 강화도의 전등사, 정족산성, 초지진, 광성보, 고인돌, 5층석탑, 북문등을 둘러보며 서울대 연갑수 연구원과 인하사대부고 천영기 선생의 강의와 슬라이드 설명, 현지설명을 들으며 동굴에 3년 항전한 유적과 미국, 프랑스의 제국주의 침략현장을 답사.
- 암으로 투병중인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상임부의장의 투병 진료비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홍의대).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기행이 끝난 후 주점에 들려 100,000원 후원금 전달.
8.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평의회, 원불교 사회개혁 교무단등 4개 종교단체 성직자등 10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직자 기도회(전주고백교회).
- 최남규 선생님 간병. 이정태, 양계숙, 정형근, 모성룡, 김성환 회원이 애쓰다.
9. 'SOFA개정 노근리 양민학살 규탄결의대회' (미국 대사관 뒤/ SOFA개정국민행동' 주관). 항의서한 미국대사관에 접수시킴.
- 양심수후원회 회지인 <후원회소식>의 발간 초기부터 편집위원으로 애썼던 회원들이 앞으로 100호를 앞두고 소식지 성격, 내용, 방향성 등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갖다(홍전영, 김언경, 유현미, 안소영, 박성희 회원).
10. 보라매병원에 입원투병중이신 최남규 선생님, 세균배양검사 결과 결핵균이 발견되어 7114호실(결핵병실)로 옮기다.
- 음시통감시통(으뜸일꾼 모성룡), 임은영, 신유호 회원이 미국으로 취업차 떠나게 되어 송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9년 11월

모임을 갖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옥고를 치루었던 함주명 선생님이 이근안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

11. 민가협 305회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7조3항에 의해 이적단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사례를 주제로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의 여는 말씀에 이어 '광운대 공대 자주대오' 사건(11/4 공대생 6명이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연행되어 2명은 영장실질심사로 풀려남, 구속된 학생 중 1명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노선을 벗어난 버스에서 연행되었다)에 대해 김규환 광운대 학생이 발표했으며 반미구국 한양' 사건(10/29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구속)에 대해 구속된 강성렬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의 발표. 조선대 '녹두대' 사건(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원심파기됨)에 대해 추창근씨 발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기관지 〈민〉 창간 1돌 기념 자축연에 함께하다.

-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신인영 선생님께서 증상이 매우 좋아진 상태에서 퇴원.

12. 과천 '한백의 집' 방문. 홍문거 선생님께서 취로 사업장에 나가시며 버린 물건들을 알뜰히 모아 재활용하고 계시며 헌책은 '한백서점'으로 가져 오셔서 책이 눈에 띄게 늘다. 김은환 선생님이 열심히 책방을 운영, 관리하고 계십니다. 책을 사려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기를 바라심.

13. 한나라 당사 앞에서 '제2의 이근안, 정형근 사법처리촉구 및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대회'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 사회단체 연석회의 주관).
• 생존권사수, 국가보안법 철폐등 99 제1차 민중대회 전야제(중앙대).

14. 생존권 사수, 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시간 단축, 농가부채 해결, 99 제1차 민중대회(민주노총, 전농, 전민련, 전국연합, 민가협 등

50여 단체의 준비위원회 주최/여의도 공원)가 열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등 4만여명이 대회가 끝나고 서울역까지 거리행진하면서 국보법 철폐 선전전, 서울역에서 정리집회하고 해산.

15. 민가협 운영위원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이근안 대책등 협의.

- 박용길, 임기란, 권오현 등 민가협 운영위원, 보라매병원으로 최남규 선생님 문병. 최남규 선생님은 박용길 장로님과 임기란 회장님을 알아보셨지만 말씀을 못하시어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박용길 장로님께서는 치료비로 써 달라며 100,000원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 8.15 범민족대축전 때 평양을 다녀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창순(범민련고문), 서원태(범민련), 이성우(부산연합의장), 강형구(전국연합), 박기수(전주녹두위원장), 황혜로(한충련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림. 방북대표들은 모두 진술에서 방북의 정당성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

-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발제:한인섭교수,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민연대 공동개최/국회 도서관 회의실)

- 민가협, 유가협 회원들, 경찰청 항의방문하여 이근안의 고문만행 규탄 및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민앞에 사죄할 것 촉구.

18. 민가협 306회 목요집회. 이근안, 정형근 등의 고문범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집회로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고 박종철 열사 아버님 박정기 님이 고문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문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연설,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즉각 사법처리하라고 서경원(89년 방북과 관련, 안기부에서 정형근에게 잠안재우기, 구타등의 모진 고문을 당함) 전 의원 연설, 함주명, 박충렬씨가 이땅에서 고문행위를 뿐 리뽑아 재발을 방지하자는 호소를 하다.

- • <말> 12월호 5부를 양심수에게 발송
 - • 양심수후원회 11월 운영위원회, 활동, 재정 보고 및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출소 선생님 건강 문제 등 협의.
- 19 • • '사상·출판의 자유와 홍교선 씨 석방촉구 결의 대회' ('사상·출판의 자유와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주관, 서초동 법원 앞). 석방촉구 서명 법원에 제출.
- •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행동연대' 대표자 회의. 11월 상반기 투쟁점검하고 1월 하반기와 12월 활동계획 협의(조계사 천막농성장)
 - • 서울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 녹색연합 등 휴전선 일대에서 미군이 고엽제를 뿌린 사실을 규탄하는 집회 갖다(서울미8군 정문앞).
 - •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대책특별위원회, 이적 단체 구성죄(7조3항) 요건을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선전, 선동에 나설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
- 20 • • 나라사랑청년회 창립10주년 한마당에 함께하다 (고려대).
- •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부의장 방북치료 촉구 결의대회(국가보안법 폐지 등 범국민 투쟁본부 주최)
- 21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준 법서약을 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가 준법서약 제 폐지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송계호 군(97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의 석방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대통령과 법무당국에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와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 보냄.
- 22 • • 민가협 어머니들, 10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관스님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하고 암투병을 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김양무 선생 문병.
-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조계사 농성자들은 양심수 군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 •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보라매 병원에 입원, 투병중인 최남규 선생님 간병. 이정태, 김현애, 성화자, 주경임, 정형근, 이득행, 홍성언 회원들이 애쓰다.
 - • 진관스님(양심수후원회 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세 번째 재판(서울지방법원 523호 법정).
 - • 올바른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본부, 대표자회의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갖고 법무부 산하기구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인권기구안을 항의하기로 결의.
 - • 노동부,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 '임원의 조합원 자격'과 '구성단체의 합법성' 등 법적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신고필증을 내주어 4년만에 합법화 되다.
- 24 • •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민회의 개정시안 규탄대회'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주최, 국보법 철폐 범국민 행동연대 주관). 임기란, 노수희, 이천재, 권오현, 국민회의 총재대행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 •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둘 머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들 농성 100일을 맞아 민가협,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 대표들 초청 간담회 갖다.
- 25 • • 민가협 307회 목요집회는 이근안, 정형근 등의 고문범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기작회 견으로 꾸며졌음. 박동운(1981년 행방불명자가족 사건으로 구속, 일가친척까지 간첩으로 조작되어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함주명(83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63일간 전기고문, 물고문당함), 이장형(84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67일간 고문당함), 김성만(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속, 안기부에서 60일간 고문당함), 서경원(13대 국회의원, 방북과 관련하여 구속된 후 정형근에게 고문당함), 김삼석(93년 결혼 6개월 만에 여동생과 함께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신동욱(92년 민애전 사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9년 11 월

전으로 안기부에서 고문수사)씨 등 참여하여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과 특별법 제정 촉구.

- 이른바 민혁당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 두 번째 공판. 서울 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림, 하영옥 씨, 사상의 자유 강조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직접 심문 거부

- 경남 창원지역 민주노총과 통일자료실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창원지역 대책위원회' 초청,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현 회장 강의.

- 민가협 회원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첫공판이 열리는 경기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희 부장판사) 법정에서 이근안의 고문만행 철저히 조사, 진상규명 할 것 촉구

- 89년 보안사의 프락치 강요 생매장 고문을 당한 김정환씨 일인극 "다시 살아부르는 노래" (민가협, 기독교 인권위 주최/기독교회관)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열한번째 자원봉사단 발대식(기독교회관)

26.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농성자들 국방부 앞에서 양심수 군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병역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갖고 5일간 단식농성 마침

- 제3기 전대협 의장 임종석 푸른정치 2000 공동대표(김정숙 전 민가협 상임의장 아드님)가 성동구 행당동 무학빌딩 419호실에서 사무실을 내고 개소식.

- 제4회 인권영화제, '모든 민중에게 권력을' 을 첫 상영하는 것으로 열리다(인권운동사랑방 주관/동국대 학술문화회관).

27. • '8개 개혁법안 처리촉구 결의대회' (여의도 국회 앞/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 주최)

-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해외 공동결의대회' (명동성당/범투본 주최)

- 한총련 98평양축전 대표 김대원 대표를 위한 하루주점(건국대)

28. • 양심수후원회 11월 산행. 모두 16명이 함께하여 그린파크-고향산천-용담계곡-대동문에 올라 점심식사를 하고 진달래능선으로 내려오다. 정석남 님(서울대학교 98총학생회장 정병도 군 아버지)께서 뒷풀이 비용 맡으심.

29. •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 간담회, 명동 한하늘땅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장기수후원회, 불교장기수후원회, 전국연합, 푸른영상 등 대표와 장기수 선생님 함께 한 자리에서 열리다. 이 자리에서는 93년에 결성한 '함세환 김인서 김영태 노인 송환 추진위원회'를 '비전향 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로 잠정 명칭을 정하고 12월 중순, 추진위 결성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

- 낙성대 만남의 집, 갈현동 만남의 집, 과천 한백의 집에 생활 지원금 드림

- 최남규 선생님 문병. 이정태, 김현애, 성화자, 주경임, 정형근 회원이 간병

30. •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민가협, 범민련, 전국연합 대표들을 초청, 앞으로 방향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와 철야농성,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단체대표들 함께하다.

- 양심수 120명에게 영치금 발송

- 양심수 가족(영남위원회 사건 대책위)에게 생활지원금 드림

- 무연고 출소장기수 선생님 2분(한춘의, 강동근)에게 생활지원금 드림

- 신인영 선생님 병원치료비 지원

- 김양무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치료비 지원

회원소식

- 한국 인권문제 연구소에서 제정한 제2회 인권상을 수상한 문동환 목사님께서 수상한 상금을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유가협에 800달러씩 후원금으로 주셨습니다.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1일, 일본의 '한국 양심수를 후원하는 회 전국 회의' 사무국장 이시이 히로시 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심수를 위한 후원금으로 350,000원을, 전국회의 대표 와다나베 가즈오님이 1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1월 17일, 갈현동 만남의 집에 계신 우용각 선생님께서 일흔번째 생신을 맞아 이정태, 김영화, 이용미, 박애신 박길수, 김영주, 송애천 회원과 그외 여러분들이 함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빨리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에서 옥사한 이재문 선생 18주기 추모모임이 인천 백석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가족, 친지 등 4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이며 시흥동 천주교회 주임신부이신 김승훈 신부님(양심수후원회 지도 위원)께서 낸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출판기념회가 11월 29일, 명동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11월 27일, 일본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으로 20년 옥고를 치루고 지난 2월 25일 풀려나신 조상록 선생님이 천주교여성공동체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선화 님과 가족 친지와 옥중 동지, 민가협 어머니들과 후원회원 등 많은 축하손님들이 함께한 합정동 밀알의 집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갑용씨와 노동사회연구소에 근무했던 이선옥씨가 민가협, 유가협, 민주노총, 전국연합등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KBS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도토리 출판사 식구들이 밥값을 모아 마련한 쌀을 낙성대 만남의 집, 갈현동 만남의 집, 최하종 김인수 선생님 댁, 민가협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쌀은 전북 변산에 있는 변산공동체학교(교장 윤구병)에서 무공해로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맛있고 깨끗한 쌀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정성,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천 용치과에서 황영태 선생님의 틀니를 무료로 해주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황철우(서울시 회현동) 이승현(서울시 광남중학교)
박정환(서울시 길음1동) 박성호(인천시 청천2동)
유선화(서울시 구로6동) 정혜선(대전시 둔산동)
신경자(서울시 상봉1동)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

고단했던 한 시대를 마감하며
민가협 어머니들,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새천년의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 시

12월 12일(일요일) 낮 12시

장 소

새서울주물럭(세종문화회관 뒤, 763-5797)

양심수 자녀들의 그림카드

엄마, 아빠를 감옥에 뺏긴 아이들이 그 기다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곱기 그지 없습니다. 마음을 전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1셋트(8개 한묶음) 5,000원
- 구입문의/ 사무실(765-5282)